

博 士 學 位 論 文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 이익유연화 행태를 중심으로 -



漢城大學校 大學院

經 營 學 科

會 計 學 專 攻

宣 順 湧

博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洪容植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 이익유연화 행태를 중심으로 -

Earnings Management by Mutual Savings Bank

- Focus on Income Smoothing Behavior -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經 營 學 科

會 計 學 專 攻

宣 順 湧

博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洪 容 植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 이익유연화 행태를 중심으로 -

Earnings Management by Mutual Savings Bank

- Focus on Income Smoothing Behavior -

위 論 文 을 經 營 學 博 士 學 位 論 文 으 로 제 출 함

2009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經 營 學 科

會 計 學 專 攻

宣 順 湧

宣順湧의 經營學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 2 장 상호저축은행 현황	7
제 1 절 지역별 분포	8
제 2 절 총자산 현황	8
제 3 절 주요 경영 현황	10
1. 영업점 및 거래고객 현황	11
2. 여·수신 현황	12
3. 손익 현황	12
4. BIS기준 자기자본 및 경영실태평가 현황	13
제 4 절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기준	15
제 5 절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 방식	17
제 3 장 이익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0
제 1 절 이익조정 정의	20
제 2 절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	20
제 3 절 선행연구	22
1. 이익유연화 가설	25
2. 자본관리를 위한 이익관리 가설	27
3. 법인세관리 가설	31
4. 부채비율 가설	32
제 4 절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38

제 4 장 연구의 설계	40
제 1 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40
제 2 절 가설의 정립	41
제 3 절 연구모형	46
1. 연구가설 H1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46
2. 연구가설 H2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50
제 4 절 표본선정	52
제 5 장 실증분석	54
제 1 절 가설1의 검증	54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54
2. 회귀분석 결과	58
2-1. 기본모형1의 회귀분석(가설1의 검증)	58
2-2. 비재량적초과이익 집단별 회귀분석	61
2-3. 지역별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63
2-4.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65
제 2 절 가설2의 검증	69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69
2. 회귀분석 결과	72
2-1. 기본모형2의 회귀분석(가설2의 검증)	72
2-2. BIS비율에 따른 집단비교 분석	74
2-3. 지역별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76
2-4.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78
제 3 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81
1. 이익유연화	81
2. 자본관리	82
2. 시사점	83
제 6 장 결 론	84

【참고문헌】	87
ABSTRACT	91



【 표 목 차 】

[표 2-1] 상호저축은행 정리현황	7
[표 2-2] 지역별 현황	8
[표 2-3] 총자산 변동추이	9
[표 2-4] 지역별 총자산 현황	9
[표 2-5] 자산 규모별 현황	10
[표 2-6] 영업점 현황	11
[표 2-7] 여·수신 동향	12
[표 2-8] 영업실적 현황	13
[표 2-9]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추이	13
[표 2-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14
[표 2-11] 경영관리기준 요약	16
[표 2-12]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여신)	18
[표 2-13]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추이	19
[표 3-1] 대차대조표자산의 위험가중치	29
[표 3-2] 선행연구 요약	33
[표 4-1] 표본 선정	53
[표 5-1]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54
[표 5-2]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상관계수)	57
[표 5-3] 회귀분석결과(가설1)	58
[표 5-4] 비재량적초과이익별 회귀분석	61
[표 5-5] 지역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64
[표 5-6]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66
[표 5-7] 규모차이 확대 회귀분석	68
[표 5-8]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70
[표 5-9]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상관계수)	72
[표 5-10] 회귀분석결과(가설2)	72
[표 5-11] BIS비율별 회귀분석	75

[표 5-12] 지역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77
[표 5-13]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79
[표 5-14] 규모차이 확대 회귀분석	8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배경 및 목적

1997년 11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를 계기로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일반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성과를 왜곡시키고 있는 기업들과 이를 감사한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재무자료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회계분식이 범죄사실로 인식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재무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회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어 가능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¹⁾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나라에 공통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실현될 예정이다. 한국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목표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IMF는 한국에 금융지원을 하면서 국내 부실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다. 이의 실행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권역으로 분화되어 있던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1999. 1월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2금융권이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현재 110여개국이 채택하였거나 도입예정

부각되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 역시 인가가 취소되거나 피합병 등을 통해 정리됨으로써 1997년말 현재 226개(일반은행은 26개)에 달하던 것이 2009년 6말 현재 106개(일반은행은 16개)로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체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구조조정 직후인 1999년 12말 현재 26조원(은행은 791조원)에서 2009년 6말 현재 75조원(은행은 1,895조원)으로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자산규모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경영부실화로 퇴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 및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적립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처음에는 은행권에만 주로 적용되었으나, 제2금융권으로서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수신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등 공공성이 강한 상호저축은행도 2000년 6월부터 동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IMF 금융위기를 벗어난 직후인 2003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대란 등을 겪으면서 일반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이를 극복하였다.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황 등에 힘입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동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도 수익이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 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한국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기업의 연평균 경기실사지수²⁾가 '07년 72.8에서 '08년 49.3으로 하락)가 장기간 침체기로 접어들어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수익이 감소되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위주로 여신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통상 경기침체기에 고객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각 금융회사들이 공시하는 경영지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2)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건설 경기가 좋다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그 미만이면 반대이다.

경영능력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일반은행에 비해 그 정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이익관리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된다.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2000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건설사의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경쟁적으로 취급하였다. 2008년 12말 현재 금융권의 동 여신규모가 82조원을 넘어섰으며, 그 가운데 상호저축은행 취급분이 12조원에 달하고 있다.³⁾

2007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민감한 몇몇 우수건설업체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관련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이 중단되거나 착공 자체가 의문시됨에 따라 이미 취급한 PF여신의 상당부분이 부실화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신의 담보물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하락으로 일반여신까지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출자산의 부실화는 곧바로 손실로 연결되어 주로 여신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감독당국의 경영지도 대상에 속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행하고 있다. 여신의 부실화 정도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감독당국이 규정하고 있어 이의 조정을 통한 이익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수신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통상 자기자본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고 있다.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부실이 심화되었는데도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도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동 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관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의 대손충당금 조정 유인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은 본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공 및 저축증대를

3) 금융감독원(2009.3.30), “금융권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보도자료

위하여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 제정으로 설립되어 출범당시에는 상호 신용금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업무기능이 일반은행과 유사하며 금고라는 의미가 일반에게 사금융으로 인식되어 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2년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그 명칭을 변경 하였다.

특히, 대주주의 전횡으로 경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반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 감독당국 역시 이들의 경영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경영성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때 기업의 사활과 자산의 지위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이 때 이익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기업 및 사회의 제반 여건이 특정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다 손쉽게 경영성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이익관리기법이 사용된다. 이익관리기법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익의 증대(income maximization), 이익의 유연화(income smoothing), 재무배쓰(financial bath) 등의 기법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유연화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익의 증대나 재무배쓰 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방법인 반면, 이익유연화는 기간 사이에 발생항목의 이전이나 실제 거래의 조정을 통하여 기간 이익조정을 가능케 한다. 즉 경영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여러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외부 이용자로부터 그 기업 내지는 경영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시도되는 이익관리기법이 이익유연화이다. 이익유연화는 기업의 현금흐름과 달리 보고이익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이익유연화가 기업의 실상 내지는 현금흐름과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유연화 가운데 자연적 유연화(natural smoothing)는 경영자의 인위적인 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조정되

는 경우이나 이런 상황은 흔치 않으며 외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위적 유연화(artificial smoothing)는 경영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이익조정현상이다.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수익이나 비용항목, 즉 발생항목(accruals)을 조정함으로써 보고이익에 변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발생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시 되지 않는다. 차기의 현금흐름은 증가하나 보고이익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생항목의 조정에 의하여 보고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이 흔히 행해지는 이익관리기법이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유연화를 시도하는 경우라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유연화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익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재무배쓰(financial bath)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익유연화는 기대이익에 근접하도록 보고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무배쓰는 기대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더욱 큰 폭으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거나 보고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재무배쓰가 시도되는 근본적인 배경은 특정기간동안 기대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보고손실을 극대화하여, 다음 기간부터의 이익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익관리 방법 중 이익유연화 측면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현상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금융감독 당국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감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는 Copeland(1968)가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익관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일반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연구는 최효순(2003)과 문현주

(2004)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김경미(2004)와 지현미·박홍조(2006)가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일반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 이익조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IMF외환위기 직후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불안정한 재무상태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30조원대로 지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기여서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금번에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익관리현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문현주(2004년)가 사용하였던 모형을 원용하였다. 왜냐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일반은행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영업점수의 변동이 거의 없었고 총자산도 일정범위(연간11조원 수준)내에서 증가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개년간의 재무자료(상호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법인이므로 6월말 기준)를 표본으로 하여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비재량적초과이익 등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호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이익조정 현상을 살펴본 다음 지역 또는 규모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이익관리의 특성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관한 추가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이익관리현상에 대하여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1장의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이익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4장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과 연구가설 및 모형을 설정하였고 아울러 표본 선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과 가설검증내용 및 연구의 시사점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장 상호저축은행 현황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2일 정부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8.3조치)을 공포함으로써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영세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로 출범하여 지금의 상호저축은행으로 변천되었다. 30여년간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해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업계의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통한 건전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나,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개선 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통해 강제 퇴출시키거나 회사간 인수·합병 등을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최근까지의 상호저축은행 정리현황을 보면 인가취소가 75개로 가장 많고 계약이전 및 피합병 66개 등 총 142개의 저축은행이 정리되었다.

<표 2-1> 상호저축은행 정리현황

(단위 : 개)

유형별	1998~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계약이전	10	15	2	3	3	33
인가취소	33	41	1	-	-	75
피합병	12	15	2	3	1	33
해 산	-	1	-	-	-	1
계	55	72	5	6	4	142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 1 절 지역별 분포

2009년 6말 현재 국내 소재 상호저축은행은 총 106개(본점기준)로 서울 26개, 부산 12개, 대구·경북 10개, 인천·경기 24개, 광주·전남 7개, 대전·충남 6개, 울산·경남 6개, 강원 2개, 충북 5개, 전북 6개, 제주 2개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지역 금융회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영세기업과 서민들에게 취급한 소액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 때 수많은 상호저축은행들이 도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최근의 금융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흡수합병 등을 통해 1개 계열사 전체의 총자산 규모가 8조원을 능가할 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도 등장하게 되었다.

<표 2-2> 지역별 현황 ⁴⁾
(2009년 6말현재)

(단위 : 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울산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계
26	12	10	24	7	6	6	7	8	106

제 2 절 총자산 현황

상호저축은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그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대형화가 시작되면서 총자산규모가 빠르게 증가되었다. 이는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4) 2009년도 상호저축은행 현황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시작한 2004년부터 주로 이루어졌으며('03년 6말대비 22.2%증가), 세계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라 2008년 이후 그 증가세('07년 6말 대비 '08.6말 현재 20.8%)가 둔화되고 있다.

<표 2-3> 총자산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03. 6말	'04. 6말	'05. 6말	'06. 6말	'07. 6말	'08. 6말	'09. 6말
27	33	38	46	53	64	7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은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상호저축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바, 총자산의 67.5%를 점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은 16.0%를 광주·호남이 6.2%를 각각 점하고 있는 등 자산규모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표 2-4> 지역별 총자산 현황
(2009년 6말현재)

(단위 : 천억원, %)

서울·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호남	제주	계
503 (67.5)	119 (16.0)	19 (2.5)	36 (4.8)	46 (6.2)	22 (3.0)	745 (100)

* ()는 구성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로서 서민금융지원이 본연의 책무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건별 금액이 비교적 큰 일반 기업여신을 위주로 취급함으로써 총자산이 3조원을 능가하여 거의 지방은행 수준에 육박하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일반은행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리스크가 큰 거액여신 보다는 안정적인 소액자금 공급을 통해 본연의 기능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1조원 이상 대형이 25개로 전체의 24%를 점하고 있고, 중형 14개, 중소형이 56개로 가장 많으며 1천억원 미만의 소형도 11개가 있다.

<표 2-5> 자산 규모별 현황
(2009년 6말현재)

(단위 : 개, %)

3조원 초과	1조원 ~ 3조원	5천억원 ~ 1조원	2천억원 ~ 5천억원	1천억원 ~ 2천억원	1천억 미만	계
3 (2.8)	22 (20.8)	14 (13.2)	38 (35.8)	18 (17.0)	11 (10.4)	106 (1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 3 절 주요 경영 현황

1972년 상호신용금고로 출범한 이후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2000년 들어 서민금융지원을 통하여 지역 금융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켜왔다. 그러나 건설업종에 대한 편중여신 심화로 인하여 부동산 경

기 침체와 더불어 최근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일반은행에 비해 수신금리가 다소 높아 자금조달이 용이한 반면, 규모가 일반은행에 비해 턱없이 작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 확보도 힘든 실정이다. 또한 영업활동의 제약으로 아직까지는 여신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불가피하다.

1. 영업점 및 거래고객 현황

2009년 6말 현재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을 포함한 총 영업점수는 305개로 '05년 6말(232개)에 비하여 35.8%가 증가하였는바, 본점은 6개 줄어든 반면 지점수가 79개 증가된 데 기인한다. 전체 임직원수는 '09년 6말 7,828명으로 '05년 6말 대비 1,495명이 증가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거래고객수를 보면 수신거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신거래자는 '05년 6말 이후 줄곧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의 부실이 늘어나자 담보확보 등으로 위험이 비교적 적으며 건당 취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여신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표 2-6> 영 업 점 현 황

(단위: 개, 천명)

	'05. 6말	'06. 6말	'07. 6말	'08. 6말	'09. 6말
본점수	112	110	108	107	106
지점수	120	131	154	183	199
임직원수	6.3	6.5	7.2	7.8	7.8
여신거래자수	1,461.3	1,187.7	920.1	833.7	822.8
수신거래자수	2,194.9	2,528.0	2,769.0	3,213.3	3,811.9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 여·수신 현황

2009년 6말 현재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총여신은 57.3조원으로 총수신 67.1조원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비중은 '07년 6말 91.8%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08년 12월중 연 8.05%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09년 6말 현재 4.86%를 유지하고 있다. 동 여신 금리는 '08년 11월중 연 13.58%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09년 6말 현재 평균 11.49%를 유지하였다. 총자산에서 총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76.4%로 아직까지도 대출 위주의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투자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10%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2-7> 여·수신 동향

(단위 : 천억원)

	'05. 6말	'06. 6말	'07. 6말	'08. 6말	'09. 6말
총자산(A)	383	464	532	635	750
총수신(B)	359	421	476	568	671
총여신(C) (담보비중,%)	314 (65.3)	371 (72.2)	437 (77.8)	508 (80.1)	573 (80.1)
예대비율(C/B),%	87.5	88.1	91.8	89.4	85.4
여신비중(C/A),%	82.0	80.0	82.1	80.0	76.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손익 현황

국내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경기의 활황 등에 힘입어 FY 2005년도 ('05년 7월 1일~'06년 6말) 기간중 5,3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FY 2007년도까지 3년간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기인하여 '09년에는 여신의 연체비율이 15.75%까

지 상승되는 등 영업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FY 2008년도('08.7.1~ '09.6말)기간 중에는 211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총자산이익율(ROA)도 '06년 1.16%에서'09년 △0.03%로 크게 악화되었다.

<표 2-8> 영업실적 현황

(단위 : 억원, %)

	'05. 6말	'06. 6말	'07. 6말	'08. 6말	'09. 6말
총자산(천억원)	383.3	464.1	531.7	635.3	749.7
당기순이익	△3,494	5,372	6,271	3,412	△211
ROA	△0.91	1.16	1.18	0.54	△0.03
연체여신비율	15.39	12.02	11.67	14.12	15.7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BIS기준 자기자본 및 경영실태평가 현황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업계전체 평균은 '05년 6말 8.69%에서 '09.6말 10.8%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다. '09년 6말 기준 경영실태계량평가결과 업계평균 종합등급 2등급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은 일부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들이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이미 취급한 PF대출의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상당수의 상호저축은행들은 경영상 애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9>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변동 추이

(단위: %)

	'05.6말	'06.6말	'07.6말	'08.6말	'09.6말
평균비율	8.69	11.92	11.30	11.42	10.8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2-10>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 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 계 량 지 표
자본적정성 (20%)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 단순자기자본비율	-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경영지도기준의 충족 정도
자산건전성 (20%)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자산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20%)	-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소유구조의 적정성 -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준수 사항
수익성 (20%)	- 총자산순이익률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미만) - 총자산경비율 (자산 2천억원 이상) (자산 2천억원 미만) - 수지비율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수익관리의 적정성 - 연결기준 수익성 - 경영합리화 노력
유동성 (20%)	- 유동성비율 - 실가용자금비율 - 유형자산비율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주 : ()는 가중치

제 4 절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⁵⁾”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인 운용방침 등의 규정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독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신기능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의 몇 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공공자금을 조달·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경영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46조~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BIS기준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자기자본비율 이하함)이 5%미만~3%이상으로 하락할 경우와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미만~1%이상에 해당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BIS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이거나 금산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될 때에는 “경영개선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이익조정 의 유인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표 2-11> 경영관리기준 요약

조치구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경영실태평가*	조치내용
경영개선 권고	3%이상 5% 미만	종합3등급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 경비절감 -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 유·무형자산 투자 및 신규출자 제한 - 부실자산 처분 - 자본금 증액 또는 감자 -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	1%이상 3% 미만	종합4등급이하	- 영업소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 조직의 축소 - 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 예금금리수준 제한 - 자회사 정리 - 영업의 일부정지 - 임원진 교체 요구 - 경영개선 권고사항 등
경영개선 명령	1% 미만		- 주식 전부 또는 일부소각 - 임원 직무집행 정지 - 관리인 선임 - 합병 또는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 제3자에 의한 인수 - 6개월이내 영업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경영개선 요구사항 등

* 개별 상호저축은행 별로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항목의 계량 및 비계량 평가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의 5개구간으로 평가한 다음 종합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단

제 5 절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 방식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이므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기업과는 달리 『기업회계기준』 외에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호저축은행 회계처리준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 특성상 수익의 대부분이 이자에 의거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회계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이자수입금액과 이자지급액을 영업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기간손익을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업무만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관계로 여신취급 비중이 전체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여신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이다. 차주가 이자지급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실 발생으로 이어진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매 분기마다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등 특정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다(여기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총자산의 7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신만을 그 대상으로 함).

통상 일반기업은 외상매출 등 신용판매 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입게 될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경험에 의한 손실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거 분류된 자산의 건전도에 따라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각각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보유자산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대손상각 절차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표 2-12>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여신)

구 분	정 의	비 고
정 상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연체여신)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여신 -분할상환기일내 미상환 분할상환금, -기한의이익 상실 여신
요주의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보유 연체여신 중 회수가 확실히 되는 경우 -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중에 있다고 인정 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 ⁶⁾ 해당 여신	-6개월이상연체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폐업중인 기업체 여신중 회수예상가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 가액 초과 여신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 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 또는 상환능력이 없는 여신 -회수의문분류 여신 중 1년이상 경과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목적은 정확한 기간손익의 산정과 보유여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대손에 대비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 할인어음, 유가증권,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09년 6말 현재 적립규모는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재량권을 발휘하여 충당금 적립비율이 높은 고정이하에 해당되는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줄이거나 그 반대의 방법으로 적립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을 통한 이익관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표 2-13>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추이

(단위 : 억원)

	05.6말	'06.6말	'07.6말	'08.6말	'09.6말
대손충당금적립액	8,510	-3,732	4,770	239	2,400
대손충당금잔액	28,743	25,011	29,781	30,020	32,42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6) 담보의 회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대지는 공시지가의 100%, 건물은 신축단가표의 70%, 아파트는 시가의 70%를 회수예상가로 산정함

제3장 이익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이익조정의 정의

이익조정은 연구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로 정의 되고 있다. 그 중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익조정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한 가지는 투자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실제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익조정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았다. 유사한 정의지만 Healy와 Wahlen(1999)은 이익조정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익조정과 유사한 용어로서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이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 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 2 절 이익조정에 관한 이론

이익조정의 동기에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인세가설은 법인세비용을 장기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로 법인세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손실에 대한 이연공제, 즉 이월결손금 공제의 기간이

제약되어 있을 경우 행하게 된다. 이 때 이익이 정상수준보다 많이 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제약 때문에 세금을 절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연도에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유연화 시킴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익의 과소로 인하여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결손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익유연화를 통한 안정적인 법인세 납부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 신뢰목적의 가설은 이익의 변동성을 안정화시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이익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즉, 유연화 된 이익흐름은 안정적인 배당과 부채상환능력을 증대시키고 임금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주주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의 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기간이익의 변동성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요인의 감소는 증권의 시장수익률과 개별기업의 시장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개별증권의 체계적인 위험을 감소시켜 주식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영자보상계약가설은 회계수치에 근거를 두는 경우 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기도 한다. 이익에 근거한 보너스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미래기간으로부터 당기로 이전시킬 수 있는 회계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채계약가설은 여러 가지 회계수치들에 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클수록 그 기업의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미래기간으로부터 당기로 이전시키는 회계절차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theory)이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성공적인 기업일수록 높은 가시성으로 인하여 공공으로부터 더 많은 규제 조치와 부의 이전을 요구받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치적비용(political cost)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이익관리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익관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금융회사에 관한 연구는 송인만·이용호(1997) 및 백원선·최관(1998) 등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이익관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범위 내에서 자사에 유리하도록 행하는 당기손익의 조정을 의미하는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구조적인 측면과 자금조달 및 운용 등이 일반기업과 달라 검증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비용 중에서 대손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 주된 영업 활동은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자금을 모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에게 공급하여 주는 여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조달되는 자금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여신 자금에는 높은 금리를 부여하여 그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하고 있다. 이 때 여신이 만기일에 회수만 되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지만, 여신을 회수하기 까지는 언제나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들이 부실여신의 추정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이익유연화, 미래예측에 대한 신호 및 자본규제에 관한 동기와 연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자본규제에 관한 것은 일관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나(Moyer, 1990; Beatty et al., 1995; Collins et al., 1995; Kim & Kross, 1998; Ahmed et al., 1999) 이익유연화와 미래의 예측에 대한 신호는 실증적 증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Copeland(1968)는 1954년부터 1964년 사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개회사를 표본으로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익유연화변수로 비연결 종속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 특별손익, 고정자산감가상각, 연금처리,

대손충당금 변경 등 5가지를 설정하였다. 유연화 변수의 시계열 길이를 늘림으로써 이익유연화에 대한 판정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전년도 이익을 기초로 당해연도 목표이익을 계산하여 유연화기업과 비유연화 기업을 분류하고 변수의 2/3이상이 충족되면 이익유연화 기업으로 판단하였으나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ascher & Malcom(1970)은 분산감소법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 현상을 Standard & Poor에 수록된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연금비용, 배당수익, 연구개발비 등이 이익유연화 변수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익유연화를 위하여 동 변수를 이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Ronen & Saden(1981)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유연화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거래처와 채권자들과의 거래조정, 연구개발비, 비용지출 시점 변경 등을 주된 유연화변수로 보고 선형시계열 추세분석을 해 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길황(1987)은 1976년에서 1985년까지 상장된 8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익유연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감가상각비, 수선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8개 항목을 이익유연화 변수로 보고 연구한 결과 경영자들은 보고이익의 유연화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대손충당금전입액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다음으로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가 이용되고 있고, 감가상각비는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영업비용은 유의하나 영업외비용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이익유연화가 주식시장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밝혀냈다.

Moyer(1990)는 단순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은행이 대출금의 대손상각비, 대출금 제각, 유가증권처분손익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수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최저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의 경영자들은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회계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ahlen(1994)는 은행 경영자들이 은행의 미래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될 때 대출채권 손실추정에 대한 자유재량부분을 증가시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은행의 경영자들은 대출채권에 대한 손실추정의 자유재량을 통하여 미래예측에 대한 신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Ahmed et al.(1994)은 미래의 예측에 대한 신호가설에 대한 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Wahlen(1994)과 Collins et al.(1995) 등은 은행의 경영자는 대출채권의 손실추정에서 자유재량부분을 이익관리에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유연화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익변동성은 위험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자는 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실질이익이 예상보다 클 경우 보고이익을 줄이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oyer(1990), Beatty et al.(1995), Ahmed et al.(1999) 등은 은행의 경영자들이 대출채권의 손실추정에서 자유재량부분을 이익유연화에 이용 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조정에 관한 국내 연구는 최효순(2003)과 문현주(2004)의 연구가 있다. 최효순은 19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상장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또는 증대시킬 경우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고려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익조정에 있어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과 수익성 지표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손충당금 전입 이전의 이익이 부진할 경우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증대시켜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부진한 경영성과가 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 증대 영향을 희석시키지만 다음 해의 수익성 개선폭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추정하였으나 추가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문현주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상장은행을 대상으로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액 조정을 통한 이익관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정전 이익이 높은(낮은) 경우 이익유연화를 위해 재량성이 높은 기말 추가인식 대손상각비를 많게(적게)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최효순

(2003)의 연구와 달리 은행이 이익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경미(2004)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339개 재무자료를 표본으로 전년도에 보고이익이 하락한 경우와 보고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재량적 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검증결과 유의한 결론을 얻었다.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대손상각비를 전년도보다 적게 보고하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은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지현미·박홍조(2006)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상호저축은행 443개 재무자료를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정전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익유연화 가설

안정된 이익흐름을 원하는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좋으면 이익증가정책을 구사하고 반대의 경우는 이익감소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익의 분산이 높으면 수익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경영자가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익유연화를 하는 이유는 결산시 기대수준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보고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조세를 지연시키거나 보고이익이 기대수준에 미달한 경우 주주들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방법을 택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는 보고이익과 이에 연계된 대차대조표 상의 숫

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투자자, 예금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숫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MA(1988)는 1980~1984기간중 100개의 미국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설정액 조정을 통한 이익유연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재량적부분과 비재량적부분의 합으로 보고 대손상각비와 무수익여신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얻은 잔차를 재량적 부분으로 보았다.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인 부분과 이익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행들이 대손충당금설정액을 가지고 이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송인만·최관(1992)은 회계변경과 이익유연화 현상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기업들은 회계변경후의 보고이익이 정상이익 또는 기대이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계변경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송인만·이용호(1997)는 이익유연화 현상의 정보효과를 재량적 발생액, 특별이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익 등이 이익유연화의 주요도구로 사용된다는 것과 유연화된 이익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Defond and Park(1997)은 경영자의 이익유연화를 기업의 현재와 미래 성과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기업들은 현재의 성과가 나쁘고 미래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회계이익 중에서 일부를 현재시점에 빌려와 양의 재량적 발생액을 취한다. 반대로 현재의 성과가 좋고 미래의 성과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회계이익을 저축하여 미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취한다는 것이다.

문현주(2004)는 국내은행들의 이익관리 현상을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익유연화 항목으로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개별항목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은행의 경영자들은 당해연도 성과에만 국한하여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이용함을 알아냈다.

2. 자본관리를 위한 이익관리가설

자본적정성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로서 이를 통하여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미래의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여부 및 보유가능성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주로 이용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이다(일반적으로 BIS비율이라 칭한다).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동 비율을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경영자들이 감독기관의 규제를 회피하고 예금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이익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Collins, Shackelford & Wahlen(1995)은 은행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처분손익, 대손충당금설정액, 대손상각비, 배당금 등 7가지 변수를 가지고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여 자본관리 현상을 검증하였다. Beatty et al.(1995)은 은행이 자기자본규제, 법인세 및 이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 거래 또는 발생계정(accrual)의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조정, 유가증권매각손익 등을 포함한 기타손익 조정, 퇴직연금 관련거래, 신주발행 또는 차입 등 외부자금조달과 같은 다섯 가지 실행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종 규제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은행의 경영자는 발생계정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자산매각거래의 시기조정, 또는 자본확충을 위한 증권발행 등을 통해 규제비용을 최소화 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1987년과 1990년 양년도에 대하여 총 638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기자본 변수는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신규증권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은 대손충당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이익조정 여부를 밝히고 있다. 구기동(1998)은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건전성 판단기준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업은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 위험자산의 대체 등의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있음을 실증분석 하였는데 BIS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용순(1999)은 국내은행의 이익관리와 자산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BIS자기자본비율 산식을 분자와 분모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BIS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이익관리를 통하여 BIS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대차대조표자산}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times 100$$

<표 3-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시)
0%	1. 보유중인 현금(외국통화, 금 포함) 2. 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3. 법정 지급준비예탁금 4. 당해 상호저축은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통화, 외국통화, 귀금속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중앙회의 지준예치금 - 예·적금담보대출, 계·부금급부금 및 계약금액내대출중 수입된 계·부금 범위내의 관련 대출 채권
10%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동 기관의 보증 또는 동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 (신용보증기금 등)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원화대출금중 관련 채권 - 지방채 등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시)
20%	6.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채권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채권 7. 다음의 국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①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 또는 50%미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및 재정적·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 8.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국내은행 관련채권 ·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 대출등) · 콜론(은행 및 중앙회) · 환매조건부매수(비은행분 제외) 등 - 중앙회의 예치금(지준금 제외)
50%	9. 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대출 9-1. 동일인에 대한 3백만원이하의 대출중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 9-2. 1억원이내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전세권 담보대출 포함). 다만, 연간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75%, 60일 이상인 경우 100%를 적용한다 10.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대출	- 직원주택대여금, 중소기업 및 가계자금대출 중 관련 대출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 정 과 목 (예시)
100%	11. 상가이외의 채권 및 자산 ·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 업무용 및 비업무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해당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다) ·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지급보증 대지급금 등) -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 - 업무용·비업무용 유형자산 - 기타자산 등

3. 법인세관리 가설

법인세 절감을 위해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백원선·최 관(1999)은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만일 법인세 부담이 클 경우에는 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부담이 경영자의 보상증가,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 또는 정치적 표적가능성의 회피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규언(1993)은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변동성의 비교를 통하여 법인세 유연화 현상을 검증하였다. 만약 세전순이익이 늘어날 때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줄이거나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세무조정을 늘려 법인세를 줄이고, 세전순이익이 감소할 때는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을 늘리고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세무조정을 줄인다면 법인세는 유연화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당기순이익의 변동성과 법인세의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만일 법인세 유연화 행위가 없었고 세무조정사항이 세

전순이익과 체계적인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과 법인세의 변동성은 절대적인 금액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연구결과 법인세의 변이계수가 순이익의 변이계수보다 작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법인세 유연화 현상을 검증하였다.

주현기(1993)는 상장기업 중 114개 기업(1981년~1990년)의 조세감면제도를 이용한 법인세 평준화 현상을 조사하였다.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인세를 평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윤종규·최신재(2001)는 서울인하와 임시특별세액 감면으로 대폭적인 조세혜택이 주어진 1992년도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세혜택을 여과 없이 향유하는지 또는 조세부담액의 급격한 감소로 빚어질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유연화를 행하는지 직접·간접 감면항목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감면을 받는 대신 법인세 유연화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이익수준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낮을수록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의 사결정에 법인세 유연화 동기가 매우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채비율이나 기업규모와는 상관이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법인세 유연화 현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부채비율가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회계수치에 근거를 둔 부채계약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경영자는 현재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회계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검증(Zmijewski & Hagerman 1981, Daley & Vigeland 1983, Lilien & Pastena 1982)되었다.

국내에서는 김문철·황인태(1996)가 기업이 전기손익수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규모가 클수록 보고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

을수록 보고이익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관측하였다. 최 관·정병욱(1998)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부도발생의 지연 및 방지, 경영자 자신의 지위보전 및 외부기관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유인으로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측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부도발생 직전연도에 순이익은 하락했으나 부도발생 방지를 위하여 현금흐름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 3-2>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결과
Copeland (1968)	- 1954-1964년기간중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개회사를 표본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 실시 - 수입배당금, 특별손익, 감가상각비, 연금, 대손충당금 등 5가지를 이익 유연화변수로 추정하되 변수의 수 시계열 길이를 늘림으로써 판정오차를 줄이고 전년도 이익으로부터 당해연도 목표이익을 계산하여 유연화기업과 비유연화 기업을 분류	○ 변수의 2/3이상이 충족되면 이익유연화 기업으로 판정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함
강길황 (1987)	- 1976~1985년 기간중 상장된 8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익유연화 검증 -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대손충당금전입액, 감가상각비, 수선비, 광고선전비, 접대비의 8개항목을 이익유연화 변수로 추출	○ 이익유연화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대손충당금전입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광고선전비와 접대비가 다음으로 이용되었으며 감가상각비는 가장 적게 이용됨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결과
Ma (1988)	- 1980~1984 기간중 100개의 미국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유연화 검증 -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재량적부분과 비재량적부분의 합으로 보고 대손상각비와 무수익여신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인 부분과 이익변수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통하여 미국은행들의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검증
Moyer (1990)	- 기준자기자본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손충당금, 대출채권 상각 및 유가증권 처분손익계정 이용 여부를 분석 - 은행의 경영자가 감독당국이 규제하는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검증	○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계정을 이용한 회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냄
송인만 최 관 (1992)	- 회계변경과 이익유연화 현상간의 관계 분석	○ 기업들은 회계변경후의 보고이익이 정상이익 또는 기대이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계변경을 하고 있음을 확인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결과
Beatty et al. (1995)	- 은행은 자기자본규제, 법인세 및 이익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반 거래 또는 발생계정(accrual)의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할 것을 가정 - 이를 위해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유가증권매각손익 등을 포함한 기타손익, 퇴직연금 관련거래, 신주발행 등의 실행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1987년과 1990년 양년도에 대하여 총 638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실시	○ 자기자본 변수는 대출채권, 대손처리, 대손충당금 설정 및 신규증권 발행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전용순 (1999)	- 국내은행의 이익관리와 자산관리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식을 분자와 분모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이익 개선을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	○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이익관리를 통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음
최효순 (2003)	- 19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상장은행 107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 한국의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축소 또는 증대시킬 경우 고려하는 항목 검증	○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고려함이 입증 ○ 그러나 이익조정시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과 수익성 지표간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결과
최현돌 윤재원 (2003)	- 1994년부터 2002년 기간중 70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당기말 대손충당금을 종속변수로 기초대손충당금, 기중상각액, 당기말 정상 및 요주의 여신, 무수익여신을 설명변수로 한 모형을 설계하여 회귀분석 실시 -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당기말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하였으며 외환 위기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	○ 외환위기 이전 기간중에 이익관리가설은 지지되었으나 자본적정성 관련 변수는 예상과 달리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냄 ○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도 이익관리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전체표본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나 비우량은행은 자본적정성비율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
문현주 (2004)	- 경영자의 재량성이 높은 개별항목을 이용한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01년 까지 7개년간의 재무자료를 가지고 일반은행 총94개 유효표본을 통한 실증 분석 - 대손상각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비재량적초과이익, 대출채권, 무수익여신, 기초대손충당금, 규모, 대출채권 및 무수익여신 변화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실시	○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많은 은행들이 비재량적초과이익에 근거하여 대손상각비를 조정하고 있음을 입증 ○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적 활용이 자본관리에도 이용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연구 내용	연구결과
김경미 (2004)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의 상호저축은행 339개를 표본으로 하여 X^2 검증 - 전년도에 보고이익이 하락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대손상각비를 전년도 보다 적게 보고하는지 여부 점검	○ 재량적항목인 대손상각비를 적게 보고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지현미 박홍조 (2006)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상호저축은행 443개를 표본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종속변수로 여신증감액 및 당기순이익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 여부 검증	○ 조정전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클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손충당금 조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함이 입증

제 4 절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이익관리가설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측정법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이익관리 동기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개 “총액발생접근법,” “개별발생액접근법” 및 “빈도분포접근법”으로 요약된다.

먼저 “총액발생접근법”은 기업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관리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발생주의의 이익인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주의의 이익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차감해서 구하며 발생액은 재량적발생액과 비재량적발생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량적발생액의 정확성은 비재량적발생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였는가에 달려있다. 대표적으로 Healy(1985)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시계열이 평균회귀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당기의 총발생액에서 과거 수년간의 총발생액 평균을 차감하여 재량발생액을 측정하였다. DeAngelo(1986)는 비재량적발생액의 시계열이 랜덤워크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당기의 총발생액에서 전기의 총 발생액을 차감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별발생액접근법”은 특수 업종의 이익관리 현상을 검증하는데 주로 적용되며 개별항목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통상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회사 등의 이익관리 검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재량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항목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익관리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모형설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변수 선정 시 누락된 변수로 인하여 검증결과가 잘못 될 수 있으며 모형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이용하거나 회귀분석결과에서 얻은 잔차를 재량발생액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eaver and Engel(1996)은 이 방법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설정액을 통하여 이익유연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대손처리금액(제각액),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변화, 대출채권 등을 이용하여 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을 추정한다. 다음 이를 실제 대손설정액에서 차감하여 재량적설정액을 계산하였다.

끝으로 “빈도분포접근법”은 “총액발생접근법”과 “개별발생액접근법”이 갖는 중심화 경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표본을 소구간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소구간별로 평균치나 중위수의 분포를 관찰하여 이익 등의 분포형태를 보고 이익관리현상을 검증한다. 이 방법은 보고되는 이익이 일정한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는데 일정한 모형에 근거한 추정보다 오류를 회피할 수 있고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분포형태를 보고 이익관리 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

Burgstahler and Dichev(1998)는 재량적 이익관리를 측정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보고된 순이익과 순이익변화의 횡단면적 분포를 이용하여 이익관리현상을 연구하였다.



제4장 연구의 설계

제 1 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경영자의 재량권이 작용될 수 있는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이익관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대손충당금 설정 시 여신의 회수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대손충당금의 설정비율을 달리(0.5%~100%)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 분류가 곧 대손충당금 규모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감독당국에서는 이러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류원칙을 정해두고 있으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이 은행과 동일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이익관리 수단으로 대손충당금 항목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자주 활용될 수 있는 항목이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임을 전제로 관련 항목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원용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문현주(2004)의 연구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X^2 검증을 실시한 김경미(2004)의 연구 및 회귀분석을 이용한 지현미·박홍조(2006)의 연구는 모두 대손충당금의 조정여부에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이익관리를 위해 재량권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조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선행연구와 동일하다.

문현주(2004)의 연구와 차이점은 첫째 연구대상을 달리하였고, 둘째 지역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집단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셋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를 일부 변경한 점이다.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김경미(2004)의 연구와는 통계분석방식을 달

리하였으며 집단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한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현미·박홍조(2006)의 연구와는 회귀분석을 사용한 것은 동일하나 모형을 달리 설계하였고,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것과 집단별 특성에 대해 분석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 2 절 가설의 정립

이익관리에 관한 검증방법으로는 총액발생액접근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생기준 회계원칙으로 산출된 기업성과인 당기순이익은 현금성 및 비현금성 수익과 비용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성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경영형태 및 재무제표형식이 일반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총액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재량적 활용이 높은 개별항목을 이용한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신업무가 전체 영업의 75%이상을 점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특성상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이익관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대손충당금설정액 및 관련 항목들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 금융회사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익유연화, 자본관리 및 법인세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자가 추구하는 주된 목적과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이익유연화와 자본관리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1~2% 포인트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데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되므로 믿고 거래 할 수 있다. 은행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이 있고 금리를 높게 준다는 이미지 부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1인 또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지배되어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경영성과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기업 보다 보고이익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익성 지표에 초점을 두어 재량적 항목을 이용해 경영자가 이익의 분산을 줄이는 이익유연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며, 동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되었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BIS자기자본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 또한 지니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일반은행들은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자산 대비 대출채권비중이 일반은행('09년 6말 67.5%) 보다 높은 상호저축은행('09년 6말 71.8%)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관리가 당연히 행하여 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익유연화와 관련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는 계획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면 경영자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연구가설 H1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비재량적초과이익(±)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연구가설 H1의 내용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증함에 따른 보조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1 : 비재량적초과이익(+)인 경우에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비재량적초과이익(-)인 경우에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이익관리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소재지역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4 : 이익관리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 크기에 따라 구분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자본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의 조정에 대한 실증분석결과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대단히 엄격하다. 전기에 감독당국에 보고했던 수준보다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거나 지도기준비율인 5%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지도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상시 지도·감독하고 있다. 전기에 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된 경우 경영 면담을 실시하거나 우선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한 현장 검사 시에도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감독당국의 감시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전기에 비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거래자들은 은행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금융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각 상호저축은행이 공시하는 재무자료 중 자기자본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위험을 느끼는 고객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재량적인 조정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의 조정여부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여기서

분자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에다 보완자본을 가산하고 일부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보완자본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영구후순위채무,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포함된다. 공제항목으로는 영업권 상각액, 이연법인세차 등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자기자본비율의 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공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위험가중자산은 사후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자기자본을 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자나 후순위 채무를 통한 자본 확충은 장시간이 소요되며 시장상황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잉여금 창출로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경영자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불가능하며 결산기에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계정 특성상 결산과정에서 이익잉여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인 대손충당금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일반기업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재고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 반면, 대출채권이 자산의 70%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정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미수이자 및 예수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등이다.

2009년 6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평균자산규모는 7,075억원이며 평균 대손충당금은 306억원으로 자산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 전산으로 자동계산 되기 때문에 전산조작을 하기 전에는 경영자가 자의적인 조정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그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상대적으로 임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확한 기준보다 상향되게 자산건전성 분류를 함으로써 실제로 고정(여신 잔액의 2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에 해당되는 여신을 요주의(여신 잔액의 2%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로 분류하여 차액(18%)만큼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기본자본을 증가시키며 결국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관련규정에서 위험가중자산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대손충당금설정액은 위험가중자산의 4.3%에 해당되어 인정 보완자본한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 결과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축소 조정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는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적게 설정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H2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도, 연구가설 H2의 내용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증함에 따른 보조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2-1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인 8% 이상인 집단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2 : 이익관리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소재지역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3 : 이익관리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 크기에 따라 구분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모형

1. 연구가설 H1의 검증을 위한 모형

본 연구가설 H1의 검증을 위해서 재량성이 높은 개별항목으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선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각각의 대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산기말에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부분이 추가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된다. 자산건전성분류가 확정되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액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이 분류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외부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동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가지고 보고이익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자산건전성분류의 재량성에 대한 유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말추가인식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대상으로 개별발생액접근법을 이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유연화 현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문현주(2004)가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을 기본으로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구조가 일반은행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종속변수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을 사용하되 설명변수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비재량적초과이익과 대출자산은 일반은행과 상호저축은행간 차이가 없으므로 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시간변수는 연구 대상기간 중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어 제외하였고 상호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및 요주의 여신을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건당 300만원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적립률이 일반은행보다 높게(정상 0.5% -> 1%, 요주의 2% -> 7%) 책정되어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대출이 57%('09년 6말 기준)에 달하여 대출채권의 변화가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채권의 변화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무수익여신과 동 변화 변수는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변수에 포함하였고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일반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실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손실을 현실화 시키는 대손처리금액(기중대손상각) 역시 대손충당금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부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 경매처리될 경우 손실을 최소화(통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유입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가는 부실여신이 변제되어 이미 적립한 대손충당금⁷⁾을 환입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한편, 대출채권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09년 6말 71.8%)이 일반은행('09년 6말 67.6%) 보다 훨씬 높으며 대손충당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자산이므로 대출채권 및 정상·요주의(상수가 되기 때문에 총자산으로 표준화)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총자산 대신 대출채권으로 표준화하였다. 규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 1)

$$\text{PROV}_{it}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변수정의)⁸⁾

PROV : 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 대출채권

7)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원금을 초과하더라도 일단 대출이 부실화 되면 고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됨

8) PROV(Provisions) : 대손충당금설정액, AEARN(An Excess Earn) : 비재량적초과이익, OL(Ordinary Loan) : 정상여신, NPL(Non Performing Loan) : 무수익여신, ALL(Allowance) : 기중대손충당금, CO(Clear Off) : 기중대손상각액, OFA(Other Fixed Asset) : 비업무용부동산

AEARN : (비재량적이익-동일연도 단순산업평균비재량적이익) / 대출채권

비재량적이익 = (법인세공제전순이익+대손상각비)

LOAN : 대출채권 / 총자산 <대출액의 합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OL : 정상·요주의여신 / 총자산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 3개월미만
인 여신의 합계를 총자산으로 제한 비율>

NPL : 무수익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로 대응) <이자수익이 없는 여신>

ALL : 기초대손충당금 / 대출채권 <기초대손충당금잔액을 대출채권
으로 제한 비율>

CO : 기중대손상각액 / 대출채권 <당해년도에 제각처리된 금액을 대
출채권으로 제한 비율>

ΔNPL : $(NPL_t - NPL_{t-1})$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변화율

OFA : 비업무용부동산 / 대출채권 <유입부동산의 기말잔액을 대출
채권으로 제한 비율 >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의거 회수 불가능한 채권
은 기 적립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각각의 대손율을 적용하
여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 대손충당금설정액은 경영자가 어느 정도 재량
권을 가지고 있는 대손상각비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의 대리변수로 재량성이 높은 대손상각비와 법인
세비용 및 유가증권처분손익을 반영하기 전인 비재량적이익을 주로 사용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표본이 모두 동일업종에 해당되므로 초과이익 개
념을 적용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른 이익크기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법인세공제전당기순이익에 대손상각비를 가산한 이익을 대출자산
으로 표준화하여 비재량적이익을 산출하였다. 비재량적초과이익은 비재량
적이익에서 동일연도 상호저축은행 전체의 비재량적이익을 단순 평균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별 이익유연화의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적으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으로 나타난 집단과 음(-)으로 나타난 집단을 구분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으로 나타난 집단이 이익유연화 목적으로 대손상각을 재량적으로 이용한다면 비재량적 초과이익의 기대부호는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및 규모별차이는 유효변수의 개수로 비교하였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대출채권, 기중대손상각액, 무수익여신, 기초대손충당금의 네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로 받는다.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출채권이 증가하면 통상 대손상각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동 항목과 대손충당금설정액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대출채권중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를 무수익여신이라 한다. 이는 미래시점에 대손발생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통상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리변수로 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보고자료에서 산정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하였다. 규모변수는 정치적 비용을 대리하는 변수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일반은행과 달리 규모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판단되어 본 모형에서 제외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손충당금설정액과 가장 연관된 변수는 대출채권과 무수익여신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무수익여신은 대손충당금설정, 여신회수, 기타 외생적인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다. 따라서 무수익여신의 변동분도 당기 대손상각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변화 변수 역시 모형 설계시 감안하였다.

(모형1)을 보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을 종속변수로 두고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 대출채권(LOAN), 정상·요주의 분류여신(OL), 기초대손충당금(ALL), 무수익여신(NPL), 기중대손상각액(CO), 무수익여신변화(Δ NPL), 비업무용부동산(OFA)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은 비재량적초과이익과 대손충당금설정액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재량적초과이익을 제외한 변수들은 일종의 통제변수의 성격을 갖는다.

2. 연구가설 H2의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

연구가설 H2의 검증시에도 (모형1)에서 사용한 기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대손상각비)을 이용하였다. 당기의 대손충당금추가설정액 가운데 경영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비재량적대손충당금설정액을 설명하는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역시 무수익여신이다. 무수익여신은 선행연구에서 채권의 위험부실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되었다(Wahlen, 1994; Liu and Ryan, 1995; Beaver and Engel, 1996; 최효순, 2003). 한국의 경우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하여도 일정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여신도 비재량적대손충당금설정액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기말 요적립 대손충당금잔액에서 미상각잔액(기초대손충당금-기중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미상각잔액을 결정하는 기초대손충당금과 기중상각액의 규모도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Beaver and Engel (1996)은 기중상각액이 대손충당금설정액 산출공식에 따른 당연한 효과 외에 미래의 상각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기말 여신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모형은 (모형1)을 기초로 하되,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자기자본비율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의 일부를 조정하였다. 당기말 대손충당금추가설정액(대손상각비)을 종속변수로 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초대손충당금, 기중대손상각액, 당기말 정상·요주의 여신, 무수익여신 및 비업무용부동산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모형1)에서는 대출자산과 정상·요주의여신을 모두 설명변수로 채택하였으나 (모형2)에서는 대출자산을 제외하고 정상·요주의여신만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대출자산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상·요주의여신이 대출채권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정부분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므로 고정이하여신과 함께 충분한 설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비재량적초과이익은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설정액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통제변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설명변수에서 제외 하였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모형2)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무수익여신(여기서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로 대체)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당기말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하였다.(모형1에서는 대출채권으로 표준화) 모형2의 경우에도 모형1에서와 마찬가지로 BIS비율별, 지역별, 규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 2)

$$\text{PROV}_{it} = a_0 + a_1\text{Capital}_{it} + a_2\text{OL}_{it} + a_3\text{NPL}_{it} + a_4\text{ALL}_{it-1} + a_5\text{CO}_{it} + a_6\text{OFA}_{it} + e_{it}$$

(변수정의) :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모형1과 동일

PROV : 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 자기자본

Capital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로 대응

OL : 당기말 정상·요주의 여신 / 자기자본

NPL : 무수익여신(당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로 대응)

ALL : 기초대손충당금 / 자기자본

CO : 기중대손상각액 / 자기자본

OFA : 비업무용부동산 / 자기자본

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추정할 때 회귀계수가 체계적으로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회귀식에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통제하는 변수와 가설검증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대손충당금설정액 산출 공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설정액과 기초대손충당금은 음(-)의 관계, 당기상각액 및 정상·요주의와 무수익여신은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의 규모가 클수록 당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무수익여신은 고정하여신에다 각 단계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을 승한 값의 합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을 대용변수로 사용함으로써 회귀식의 합리성을 추구하였다. 대손충당금설정액의 비재량적요소를 앞에서 기술한 설명변수로 통제한 다음 자본관리가설의 검증변수인 Capital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면 가설2는 지지된다.

이는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분자에 해당하는 기본자본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결국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 4 절 표본 선정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익관리 현상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완성되고 대다수의 상호저축은행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을 표본 선정 기간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결산기인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자료와 업무보고서에서 추출하였으며 2009. 6월 현재 전국소재 상호저축은행 본점 106개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표본은 318개가 추출되었고 이 가운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시계열 재무자료가 부족한 8개의 상호저축은행은 제외하였다. 검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수가 평균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표본(표준편차 ± 6)을 제거한 결과 유효표본수는 261개이다.

<표 4-1> 표 본 선 정

선 정 기 준	표 본 수
- 대상 : 전국소재 상호저축은행 본점	318개
- 기간 : 2007. 6말 ~ 2009. 6말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및 업무보고서	
- 기타 : 재무정보가 부족한 관측치	24개
- 평균에서 이상적으로 벗어난 자료	33개
유효 관 측 수	261개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가설1의 검증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효과적인 실증분석을 위하여 먼저 기본 절차인 기술적 통계치 확인을 통하여 각종 계수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재량적 항목과 이익 변수간의 상관관계 유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익관리 여부를 검증하였는바, 본 연구에서는 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5-1>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ROV	0.0043146	0.01888553	0.06730	-0.13244
AEARN	-0.0532946	0.18289716	0.25086	-2.04849
LOAN	0.7786073	0.12136651	0.97678	0.18689
OL	0.7926750	0.09788128	0.94098	0.18571
NPL	0.0733142	0.05376334	0.31570	0.00110
CO	0.0113742	0.01523565	0.08180	0.00000
ALL	0.0440911	0.02659564	0.19310	0.00078
△NPL	-0.0026224	0.05581061	0.19930	-0.36433
OFA	0.0233693	0.02751838	0.15180	0.00000
유효관측수	261			

(변수정의)

PROV : 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 대출채권

AEARN : 비재량적초과이익= 비재량적이익 - 동일년도단순평균비재량적이익 / 대출채권
비재량적이익 = (법인세공제전 당기순이익 + 대손상각비)

LOAN : 대출채권 / 총자산

OL : 정상·요주의 여신 / 총자산

NPL : 고정이하여신비율

CO : 기중대손상각액 / 대출채권

ALL : 기초대손충당금 / 대출채권

ΔNPL : $(NPL_t - NPL_{t-1})$ 고정이하여신변화율

OFA : 비업무용부동산 / 대출채권

<표 5-1>에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면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의 평균값은 -0.0533이고 최대값은 0.251이며 최소값은 -2.048이다. 이로써 초과이익이 양(+)인 상호저축은행 보다 음(-)인 상호저축은행의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손상각비는 평균값이 총 대출자산의 0.431%이고 표준편차는 대출자산 대비 1.889%를 점하고 있다. 비율로 보아 그다지 크지 않은 수치이며 초과이익의 표준편차(0.1829)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이하 대손상각비라 한다)의 표준편차(0.0189) 보다 클 뿐 아니라 대손상각비의 상대적 크기가 대출채권의 0.5%(PROV/ LOAN)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기간 중에는 대손상각비가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부동산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실이 적게 발생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균 무수익여신이 총자산의 7.3% 및 대출채권의 9.4%(0.073/0.78)에 달하고 있어 부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동 무수익여신을 일시에 제각 처리할 경우 상당수의 상호저축은행은 손실발생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업무용자산도 대출자산의 평균 2.3%를 점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대손충당금(ALL)의

평균값이 총대출채권의 4.4%를 점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인해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수익여신의 변화율의 평균은 음수(-)로 나타나 대상기간 전체로 보면 무수익여신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무수익여신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사용하여 수익성을 조절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표 5-2>에서는 변수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당초에 예상한 바와 같이 비재량적 초과이익(AEARN)과 대손상각비(PROV)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331)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이익수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를 재량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대손상각비는 무수익여신(NPL)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131)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수익여신의 변화와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0.374)를 보이고 있다. 무수익여신은 미래 손실가능성이 큰 대출채권이며 대손상각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

대손상각비와 대출채권(LOAN)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24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대손충당금잔액(ALL)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487)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에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많을수록 기말 대손상각비를 적게 적립하게 되는 대손상각비 설정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손상각비와 정상·요주의여신(OL)과는 양의(+)상관관계이고 예상대로 비업무용부동산(OFA)과는 음(-)의 상관관계이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량적 초과이익은 기초대손충당금(ALL)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143)를 보임으로써 기초대손충당금이 증가하면 비재량적 초과이익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변수들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무수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 및 무수익여신변화(Δ NPL)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무수익여신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정상·요주의여신(OL)은 대출자산 및 기중대손상각비(CO)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무수익여신과 기초대손충당금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출이 증가하면 정상여신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대손충당금 비중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비업무용부동산(OFA)도 무수익여신 및 기초대손충당금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기중대손상각 및 정상·요주의여신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감이 이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변 수	PROV	AEARN	LOAN	NPL	ALL	CO	Δ NPL	OL	OFA
AEARN	0.331**	1							
LOAN	0.249**	0.429**	1						
NPL	0.131*	-0.037	0.127*	1					
ALL	-0.487**	-0.149*	0.009	0.481**	1				
CO	0.122*	0.199**	0.168**	-0.042	0.054	1			
Δ NPL	0.374**	0.208**	0.060	0.406**	-0.249**	-0.025	1		
OL	0.080	-0.464**	0.643**	-0.383**	-0.232**	0.291**	-0.091	1	
OFA	-0.84	-0.008	0.089	0.354**	0.362**	-0.187**	-0.011	-0.323**	1

주 : 1 변수의 정의는 <표 5-1> 참조

2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2. 회귀분석 결과

2-1. 기본모형1의 회귀분석(가설1의 검증)

모형1의 회귀분석에서 주요 관심사는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 즉 대손상각비(PROV)가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익조정 전에 당해연도의 성과를 나타내 주는 비재량적초과이익을 확인하여 초과이익이 양(+)일 경우와 그 반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희망하는 보고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과연 대손상각비를 조정할 유인을 갖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통제변수간 회귀값의 방향성 및 유의수준을 파악하여 가설의 지지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변수간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규명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표 5-3>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1)

$$\text{PROV}_{it}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변 수	기대부호	계 수	t 값	유의확률
상 수		0.025	2.582***	0.010
AEARN	+	0.023	4.227***	0.000
LOAN	+	0.036	3.307***	0.001
OL	+	-0.047	-3.065***	0.002
NPL	+	0.132	4.902***	0.000
ALL	-	-0.503	-11.433***	0.000
CO	+	0.002	3.461***	0.001
△NPL	+	-0.011	-0.560	0.576
OFA	-	0.007	0.208	0.836
수정된 R ²	0.499(F=33.31)			
유효관측수	261			

(변수정의)

PROV :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 대출채권

AEARN : (비재량적이익 - 동일년도 업계단순평균비재량적이익) / 대출채권

LOAN : 대출채권 / 총자산

NPL : 고정이하여신비율

CO : 기중대손상각액 / 대출채권

ALL : 기초대손충당금잔액 / 대출채권

△NPL :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변화율

OL : 정상·요주의여신 / 총자산

OFA : 비업무용부동산 / 대출채권

<표 5-3>의 회귀분석모형의 기대 부호는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 설정액(PROV)과 설명변수들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선행적으로 습득한 방향성과 연구가설을 전제로 추정하였다. 기초대손충당금잔액 및 비업무용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양(+)의 부호임을 예측하였다.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과 대손상각비와의 관계에서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이면 경영자는 이익을 줄이려고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대출 및 정상·요주의여신의 증가는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대손충당금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출채권(LOAN) 및 정상·요주의여신(OL)과 대손충당금간에는 양(+)의 관계이다.

무수익여신(NPL)에 일정 적립률을 승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무수익여신의 증가는 곧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무수익여신 및 무수익여신변화는 대손충당금과 양(+)의 관계이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 의거 결정된 대손충당금요적립액에서 기초대손충당금잔액과 기중대손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중대손상각액(CO)이 발생하면 그만큼 기말에 적립하여야할 대손충당금 규모는 늘어나게 되어 역시 양(+)의 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기초대손충당금(ALL)의 경우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기말에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이 적어지게 되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OFA)의 증가는 부실여신의 회수를 의미하며 이 때 기 적립한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되어 대손충당금이 감소될 것이므로 음(-)의 부호를 예상하였다.

<표 5-3>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비재량적초과이익의 계수는 0.023, t값은 4.227로서 아주 유의(0.01수준)한 회귀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비재량적초과이익이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 H1은 지지되었다.

통제변수인 무수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은 예상대로 유의한 계수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무수익여신의 경우는 가장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미래손실 발생율(고정 20%, 회수의문 75% 이상)이 높아 대손충당금설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기초대손충당금잔액(ALL)은 예상대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 기말대손충당금 설정액 규모에 반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대손상각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대출채권(LOAN) 역시 유의한 양(+)의 회귀값을 보여주어 대출채권의 증가는 곧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무수익여신의 변화변수(Δ NPL)와 정상·요주의분류여신(OL)은 예상과 달리 음(-)의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정상·요주의분류여신(OL)은 1%이내에서 유의하다. 이는 대상기간중 신규여신의 부실발생률이 낮아 무수익여신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관관계분석에서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비업무용부동산(OFA)은 예상과 달리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형저축은행들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이 낮아 전체대손충당금에 비해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손충당금환입 비중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는 0.499($F=33.91$)로 통상 이상의 값을 보여 주었다.

특히, 문현주(2004)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던 설명변수인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 대출채권(LOAN), 무수익여신(NPL), 기초대손충당금(ALL)은 본 연구에서도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지 않았던 무수익여신변화(Δ NPL)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새로 추가한 변수 중 기중대손상각액(CO) 및 정상·요주의분류여신(OL)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비업무용부동산(OFA)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보다 회귀값의 유의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유의한 설명변수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1인 또는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일반은행 보다 훨씬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비재량적초과이익 집단별 회귀분석

여기서는 경영자가 재량적 활용도가 높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손익의 변동폭을 축소시키려고 행하는 이익유연화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모형1)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인 집단과 음(-)인 집단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변수의 조정은 하지 않았다.

<표 5-4> 비재량적초과이익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begin{aligned} \text{PROV}_{it} =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변 수	(AEARN>0)		(AEARN<0)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017	1.182	0.024	2.006**
AEARN	0.047	1.539	0.019	2.927***
LOAN	0.014	0.962	0.053	3.566***
NPL	0.260	3.543***	0.126	4.194***
ALL	-0.570	-4.959***	-0.497	-9.981***
CO	0.133	1.868*	0.117	1.375
△NPL	-0.052	-0.902	-0.012	-0.519
OL	-0.016	-0.688	-0.065	-3.451***
OFA	-0.083	-1.416	0.009	0.219
유효관측수	73		188	
수정된 R ²	0.369(F=6.25)		0.514(F=25.75)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 수준에서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3> 참조

<표 5-4>에서와 같이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음(-)인 집단은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간 유의(0.01수준)한 양(+)의 회귀계수(0.019)를 나타내어 대손상각을 이용한 이익조정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음(-)의 회귀값을 가질것이라는 연구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양(+)인 집단은 유의한 회귀값을 보이지 못하여 역시 연구가설 H1-1 역시 기각되었다. 이로써 비재량적초과이익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결과에는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비재량적초과이익이 음(-)인 집단의 대손충당금 조정유인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손충당금설정액과 대출채권(LOAN)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재량적초과이익(-)집단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비재량적초과이익(+)집단은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수

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은 양 집단 모두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변수가 대손충당금 조정시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중대손상각액(CO)은 초과이익이 양(+)인 집단은 유의한 양(+)의 회귀값을 보인 반면 초과이익이 음(-)인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과이익(+)인 집단은 기중상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수익여신변화(Δ NPL)와 비업무용부동산(OFA)은 양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은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OFA)의 경우는 두 집단간 회귀계수의 부호가 반대방향이다. 이는 비재량적초과이익(-) 집단의 구성원이 초과이익(+)인 집단에 비하여 규모가 작아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비재량적 초과이익이 양(+)인 집단과 음(-)인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음(-)인 집단은 당초 가설에는 부합되진 않았으나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인 집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이익조정현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다만, 종속변수인 대손상각액(PROV)과 설명변수인 무수익여신(NPL), 기초대손충당금(ALL) 및 기중대손상각액(CO)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집단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의 조정 가능성이 입증 되었다. 설명변수 중 무수익여신변화(Δ NPL)는 예상과 달리 양집단간 모두 음(-)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 기간중 무수익여신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인 R^2 는 초과이익(+)집단은 0.369($F=6.25$)로 다소 낮은 면이 있으나 초과이익(-)집단은 0.514($F=25.75$)로 통상적인 수준을 나타내었다.

2-3. 지역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여기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익유연화 정도가 다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집단과 비수도권 소재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1)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5> 지역별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text{PROV}_{it}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변 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비수도권 소재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018	1.566	0.033	2.089**
AEARN	0.072	2.876***	0.020	2.722***
LOAN	0.026	1.861*	0.076	4.121***
NPL	0.175	4.897***	0.060	1.555
ALL	-0.569	- 9.787***	-0.361	-5.405***
CO	0.002	2.161**	0.004	3.541***
△NPL	-0.064	-2.420**	0.051	1.711*
OL	-0.030	-1.433	-0.096	-4.288***
OFA	0.008	0.166	-0.021	-0.427
유효관측수	141		120	
수정된 R ²	0.554(F=22.73)		0.521(F=17.20)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 수준에서 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3> 참조

<표 5-5>에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호저축은행 집단과 수도권이외 지역소재 상호저축은행집단 모두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간에는 아주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이익유연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활용한다는 가설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두 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 모두 대출채권(LOAN), 기초대손충당금(ALL), 기중대손상각액(CO), 무수익여신변동율(△NPL) 등의 설명변수

가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모두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어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을 구분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설명변수들의 회귀값의 유의정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은 지역별로 유사한 영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요주의(OL)변수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 집단만 예상과 달리 유의한 음(-)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저축은행 집단은 정상·요주의 여신의 규모가 기타지역 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손충당금설정에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업무용부동산(OFA)의 경우는 양 집단 모두 회귀값이 유의하지 않으나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양(+)의 계수로 나타났다.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수익여신변화(ΔNPL)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음(-)의 회귀값 인데 반해 수도권이외 지역은 양(+)의 회귀값으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기타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아 무수익여신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두 집단 간 이익유연화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연구가설 H1-3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모형의 설명력을 뜻하는 R^2 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집단이 0.554($F=22.73$)로 기타지역(비수도권) 집단 0.521($F=17.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2-4.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이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크기에 따른 이익유연화 현상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자산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집단과 5천억원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다 더 대규모이거나 소

규모에 해당하는 집단간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표본에서 총자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집단과 3천억원 이하의 집단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이 역시 (모형1)을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6> 규모별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text{PROV}_{it}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변 수	총자산5천억원 초과 집단		총자산 5천억원이하 집단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038	3.094***	0.025	-1.678*
AEARN	0.130	5.001***	0.025	3.389***
LOAN	0.057	4.098***	0.028	1.652
NPL	0.138	3.425***	0.150	4.293***
ALL	-0.611	-9.907***	-0.443	-7.358***
CO	0.003	4.044***	0.001	0.544
△NPL	-0.095	-2.660**	-0.005	-0.213
OL	-0.080	-3.534***	-0.041	-2.066
OFA	-0.054	-1.172	-0.017	-0.348
유효관측수	99		162	
수정된 R ²	0.733(F=34.58)		0.413(F=15.16)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수준에서 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3> 참조

<표 5-6>에서 두 집단 모두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간에는 아주 유의한(0.01수준) 양의(+) 회귀값을 나타냄으로써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익조정에 이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특히

총자산 5천억원 초과 그룹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OFA)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회귀값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소규모 집단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총자산 5천억원 이하 그룹의 경우는 무수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만이 유의한 회귀값을 보임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현상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상호저축은행 일수록 매 결산기마다 이익규모의 변동이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익조정의 유인이 대형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자산 5천억원 초과 대형 집단의 경우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무수익여신변화율(Δ NPL) 및 정상·요주의 대출채권(OL)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유의하지는 않지만 소형의 경우도 동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대상 기간중 무수익여신의 상당부분이 요주의 또는 정상여신으로 환원되었거나 신규여신의 부실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결과 중형 이상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가설 H1-4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앞으로 중형이상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특히,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사소한 부실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설명력인 R^2 는 5천억원 초과 집단이 0.733($F=34.58$)으로 비교적 양호하며 5천억원 이하 집단은 0.413($F=15.16$)을 나타내어 다소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의 차이에 따른 이익유연화 정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 자산규모의 차이를 확대하여 추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중간규모 집단을 제외한 관계로 표본 수가 177개로 줄어들었다.

<표 5-7> 규모 차이 확대를 통한 추가 분석

$$\text{PROV}_{it} = \alpha_0 + \alpha_1 \text{AEARN}_{it} + \alpha_2 \text{LOAN}_{it} + \alpha_3 \text{OL}_{it} + \alpha_4 \text{NPL}_{it} + \alpha_5 \text{ALL}_{it-1} \\ + \alpha_6 \text{CO}_{it} + \alpha_7 \Delta \text{NPL}_{it} + \alpha_8 \text{OFA}_{it} + \varepsilon_{it}$$

변 수	총자산1조원 초과 집단		총자산 3천억원이하 집단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045	4.411***	0.026	1.399
AEARN	0.228	4.830***	0.029	3.110***
LOAN	0.028	2.211**	0.015	0.569
NPL	0.146	2.398**	0.197	4.125***
ALL	-0.529	-5.782***	-0.477	-6.717***
CO	0.002	3.866***	0.001	0.523
△NPL	-0.049	-1.062	-0.053	-1.504
OL	-0.065	-3.321***	-0.033	-1.309
OFA	-0.054	-1.453	-0.030	-0.488
유효관측수	69		108	
수정된 R ²	0.835(F=43.94)		0.437(F=11.38)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수준에서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5> 참조

<표 5-7>에서 보면 총자산이 1조원이상인 대형 상호저축은행 집단의 경우 무수익여신변화(△NPL) 및 비업무용부동산(OFA)의 경우에만 유의하지 않은 회귀값을 표시하고 있을 뿐 여타 변수는 모두 아주 유의(0.01수준)한 회귀값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집단은 이익유연화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총자산 3천억원 이하의 소규모 집단은 앞의 <표 5-6>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수익여신 및 기초대손충당금만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 현상은 규모

가 클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설명변수인 무수익여신변화율(ΔNPL) 및 정상·요주의여신(OL)간에는 양집단 모두 음(-)의 회귀값을 나타내어 앞의 <표 5-6>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인 소형(36개)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1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영세 상호저축은행이 25%(9개)에 달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의 변동폭이 적어 이익조정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대형 상호저축은행은 건당 대출금액이 큰 기업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기회가 소형에 비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가 본 회귀분석에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규모가 큰 상호저축은행 일수록 이익조정현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감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형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보다 이익조정 현상은 소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영세하여 부실 발생에 따른 충격이 대형에 비해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형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도 감독당국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대형 집단의 경우 회귀식의 설명력이 아주 높은($R^2 : 0.835$)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형집단은 이보다 낮은($R^2 : 0.437$) 수준이었다.

제2절 가설2 검증

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제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증적 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먼저 기본적인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고 재량적 항목과 이익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과 중회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의 채택여부를 검증하였다.

<표 5-8>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ROV	0.0481995	0.27189601	1.58774	-2.95564
Capital	0.1300870	0.09741754	1.24120	0.03910
OL	10.94015	5.043113	35.34175	0.37141
NPL	0.4139787	0.58996565	5.44239	0.00073
ALL	0.5283298	0.66109447	5.42763	0.00262
CO	0.0817131	0.22963117	2.40602	0.00000
OFA	0.2758665	0.42565412	2.72857	0.00000
유효관측수	261			

(변수정의)

PROV : 기말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 / 자기자본

Capital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OL : 당기말 정상 및 요주의 여신 / 자기자본

NPL : 무수익여신(당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로 대응)

ALL : 기초대손충당금 / 자기자본

CO : 기중대손상각액 / 자기자본

OFA : 비업무용부동산 / 자기자본

<표 5-8>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살펴보면 대손충당금설정액(PROV)의 평균값은 0.0482로 최대값이 1.588이고 최소값은 -2.956으로 (모형1)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전자에서는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총 대출채권으로 나누어 변수의 표준화를 시도한 반면 여기서는 자기자본으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이다. (모형1)은 이익유연화 현상이 분석의 대상이나 (모형2)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증해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기자본이 관심의 대상이다. 기초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 대비 평균 52.83%이고 표준편차도 66.11%에 달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이 자기자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설정되고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수익여신(여기서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을 사용)도 평균비율이 41.4%을 나타내고 있어 부실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무수익여신을 일시에 제각처리하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8%)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고 상당수의 상호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경영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는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5-9>는 변수간 Pearson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살펴보면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CAPITAL)간에는 음(-)의 상관관계(-0.044)가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이 증가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하락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PROV)은 무수익여신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0.126)를 나타내어 무수익여신이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초대손충당금(ALL) 및 기중대손상각액(CO)과는 각각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0.270 및 -0.519)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기초대손충당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으면 기말추가대손충당금설정액이 감소되고 기중에 대손상각을 실시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 잔액이 감소되어 기말에 추가 적립할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변수들이 증가(감소)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감소(증가)됨을 의미한다. 한편 무수익여신(NPL)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대손충당금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이밖에 비업무용부동산(OFA)도 기말대손

충당금설정액을 제외한 각각의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변 수	PROV	Capital	OL	NPL	ALL	CO	OFA
Capital	-0.044	1					
OL	-0.036	-0.537**	1				
NPL	0.126*	-0.278**	0.660**	1			
ALL	-0.270**	-0.276**	0.664**	0.909**	1		
CO	-0.519**	-0.148*	0.397**	0.484**	0.708**	1	
OFA	-0.039	-0.233**	0.400**	0.615**	0.608**	0.328**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8> 참조

2. 회귀분석 결과

2-1. 기본모형2의 회귀분석(가설2의 검증)

여기에서는 당기말 대손충당금전입액(PROV)의 비재량적 요소를 설명 변수로 통제한 다음 검증변수인 BIS 자기자본비율(Capital)의 회귀계수간 유의성 여부를 분석하여 연구가설(H2)의 지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5-10> 회귀분석결과 (모형 2)

$$\text{PROV}_{it} = a_0 + a_1\text{Capital}_{it} + a_2\text{OL}_{it} + a_3\text{NPL}_{it} + a_4\text{ALL}_{it-1} + a_5\text{CO}_{it} + a_6\text{OFA}_{it} + e_{it}$$

변 수	기대부호	계 수	t 값	유의확율
상 수		0.150	5.902***	0.000
Capital	-	-0.182	-2.372**	0.018
OL	+	0.000	0.093*	0.926
NPL	+	0.995	32.673***	0.000
ALL	-	-0.934	-27.252***	0.000
CO	+	0.047	1.028	0.305
OFA	-	-0.009	-0.465	0.642
수정된 R ²	0.865(F=277.57)			
유효관측수	261			

(변수정의)

PROV : 당기말 대손충당금전입액 / 자기자본

Capital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OL : 당기말 정상 및 요주의 여신 / 자기자본

NPL : 당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ALL : 기초대손충당금 / 자기자본

CO : 기중대손상각액 / 자기자본

OFA : 비업무용부동산 / 자기자본

<표 5-10>의 예측부호는 < 모형1 >과 유사하게 종속변수인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과 설명변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선행적인 실무회계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는바,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Capital)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되면 그만큼 이익잉여금 감소로 이어져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당연히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았다.

기말대손충당금설정액은 자산건전성분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요 적립금액에서 기초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적립하게 됨으로 기초대손충당금이 클 경우 기말에 적립하여야 할 추가 대손충당금의 규모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부호가 음(-)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상 상호

저축은행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무수익여신의 담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할 경우에는 손실보전을 위해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증가는 무수익여신의 감소로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기 적립해놓은 대손충당금(무수익여신은 최소 20%이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있음)의 환입효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대손충당금설정액과는 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았다. 그 이외의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비재량적대손충당금 설정액(PROV)과 검증변수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Capital)과는 유의(0.018)한 음(-)의 관계가 있으므로 연구가설 H2는 지지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방지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대손충당금설정액과 기초대손충당금(ALL)은 예측한 바와 같이 유의한 음(-)의 회귀값을 무수익여신(NPL)과는 유의한 양(+)의 회귀값을 각각 나타내어 대손충당금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요주의여신(OL)과 기중대손상각금액(CO) 및 비업무용부동산(OFA)은 예상과 달리 회귀값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모형의 설명력을 뜻하는 R^2 는 0.865($F=277.5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2-2. BIS 비율에 따른 집단 비교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대손충당금설정액 조정을 통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확충 문제는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규모나 소재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모형1)에서 이익유연화 현상을 분석하며 다루었던 바와 같이 자기자본 관리를 위한 이익조정의 영향력이 각 집단간에 다르게 작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비슷한 특성을 지닌 집단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먼저 감독당국의 경영지도 대상

이 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두 집단(적정 비율인 8% 미만과 8% 초과)으로 분리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1> BIS 기준비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text{PROV}_{it} = a_0 + a_1\text{Capital}_{it} + a_2\text{OL}_{it} + a_3\text{NPL}_{it} + a_4\text{ALL}_{it-1} + a_5\text{CO}_{it} + a_6\text{OFA}_{it} + e_{it}$$

변 수	BIS비율 8% 이상		BIS비율 8% 미만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102	4.247***	-0.251	-0.813
Capital	-0.133	-2.050**	4.231	1.052
OL	0.005	2.651***	-1.601	-0.002
NPL	0.809	18.633***	1.168	16.911***
ALL	-0.790	-19.797***	-1.112	-12.494***
CO	-0.032	-0.543	0.223	2.008*
OFA	-0.029	-1.457	0.075	1.443
수정된 R ²	0.671(F=78.80)		0.947(F=90.83)	
유효관측수	230		31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 수준에서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10> 참조

<표 5-11>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집단의 경우는 예상과 달리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자기자본(Capital)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말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하락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일부가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확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 회귀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집단의 경우는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자기자본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H2-1은 지지되었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 관리를 위하여 대손충당금설정액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양집단 모두 무수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변수는 모두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었으며, BIS비율 8%초과 집단의 경우에는 정상·요주의여신(OL)의 경우에도 유의한 양(+)의 회귀값을 보임으로써 대출자산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미만인 경우는 정상·요주의여신(OL)이 유의하지는 않으나 음(-)의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경우 모든 변수를 비율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신규대출을 늘리면 전체 대손충당금비율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BIS비율 8%미만 집단의 표본 수가 31개에 불과함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회귀분석결과에서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비율(8%)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본관리를 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BIS비율이 양호한 집단이 열악한 집단 보다 더 활발하게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이익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인 R^2 는 BIS비율 8% 미만인 집단의 경우가 0.947($F=90.8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3. 지역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이익유연화 현상에 대한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관리 측면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집단과 기타 지방소재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2)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2> 지역별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PROV_{it} = a_0 + a_1Capital_{it} + a_2OL_{it} + a_3NPL_{it} + a_4ALL_{it-1} + a_5CO_{it} + a_6OFA_{it} + e_{it}$$

변 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비수도권 소재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222	4.173***	0.106	3.612***
Capital	-0.522	-2.240**	-0.104	-1.439
OL	-0.003	-1.157	0.002	0.941
NPL	1.103	25.278***	0.911	25.045***
ALL	-0.953	-17.325***	-0.899	-23.755***
CO	-0.054	-0.802	0.043	0.416
OFA	0.033	0.943	0.004	0.213
유효관측수	144		117	
수정된 R ²	0.904(F=224.61)		0.855(F=115.05)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수준에서 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10> 참조

<표 5-12>의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 집단의 경우에는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검증변수인 자기자본(Capital)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조정을 통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 반면, 부산 및 여타지방 소재 상호저축은행 집단의 경우는 동 변수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회귀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예상대로 연구가설 H2-2는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관리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무수익여신(NPL) 및 기초대손충당금(ALL)이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어 대손충당금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상·요주의여신(OL)과 기중대손상각액(CO)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집단간 상반된 부호를 보여주었다. 앞의(모형1) 분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는 모든 변수들을 비율로 표준화한 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간 규모의 격차 때문에 변수간의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상호저축은행과 기타 지역 소재간에 자산규모면에서 7:3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업무용부동산(OFA)은 예상과 달리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귀값을 나타내 기말대손충당금 적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는 양집단 모두 높은 수준(서울 및 수도권 0.904 및 기타 0.855, F값은 각각 224.61 및 115.05)이었다.

2-4. 규모별 구분에 의한 회귀분석

이번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따른 자본관리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자산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그룹과 5천억원 이하인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규모차이가 큰 집단간의 비교를 위하여 총자산이 1조원을 초과하는 집단과 3천억원 이하의 집단을 추출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이 역시 (모형2)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3>에서 총자산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 집단의 경우는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검증변수인 자기자본(Capital)간에 유의한 음(-)의 회귀값을 보이고 있으나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가설 H2-3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규모의 크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본관리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의 <표 5-12>의 지역별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수익여신(NPL)과 기초대손충당금(ALL)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한 회귀값을 보여주어 대손충당금의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소형집단의 경우에는 정상·요주의여신(OL) 및 비업무용부동산(OFA)의 경우에도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고 있어 소형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관리 보다는 대손충당금 설정액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표 5-13> 규모별 구분에 따른 회귀분석

$$PROV_{it} = a_0 + a_1Capital_{it} + a_2OL_{it} + a_3NPL_{it} + a_4ALL_{it-1} + a_5CO_{it} + a_6OFA_{it} + e_{it}$$

변 수	총자산5천억원 초과 그룹		총자산 5천억원이하 그룹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267	5.600***	0.134	4.428***
Capital	-0.566	-2.425**	-0.116	-1.479
OL	-0.001	-0.554	-0.004	-1.753*
NPL	0.937	21.223***	1.052	28.382***
ALL	-0.943	-20.242***	-0.878	-19.523***
CO	0.109	1.890*	-0.045	-0.713
OFA	0.017	0.621	-0.048	-2.015**
유효관측수	99		162	
수정된 R ²	0.858(F=99.80)		0.901(F=244.31)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수준에서 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10> 참조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본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의 조정은 소형 상호저축은행 보다는 규모가 큰 대형 상호저축은행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자본관리의 정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 자산규모의 차이를 확대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 중간수준에 해당되는 표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표본수는 177개로 줄어들었다.

<표 5-14> 규모 차이 확대를 통한 추가 분석

$$\text{PROV}_{it} = a_0 + a_1\text{Capital}_{it} + a_2\text{OL}_{it} + a_3\text{NPL}_{it} + a_4\text{ALL}_{it-1} + a_5\text{CO}_{it} \\ + a_6\text{OFA}_{it} + e_{it}$$

변 수	총자산1조원 초과 집단		총자산 3천억원이하 집단	
	계 수	t 값	계 수	t 값
상 수	0.260	3.316***	0.075	2.037**
Capital	-0.622	-1.127	-0.046	-0.598
OL	-0.002	-0.824	-0.002	-0.618
NPL	0.975	17.093***	1.103	25.466***
ALL	-0.945	-17.544***	-0.855	-15.049***
CO	0.076	1.180	-0.116	-1.387
OFA	0.023	0.761	-0.080	-3.113***
유효관측수	69		108	
수정된 R ²	0.882(F=85.62)		0.941(F=283.22)	

주) 양측검증이며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 0.10 수준에서유의

* 변수의 정의는 <표 5-10> 참조

<표 5-14>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양 집단 모두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검증변수인 자기자본(Capital)간에는 예상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회귀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의 크기를 확대하여 집단을 구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자기자본관리를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조정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양 집단 모두 무수익여신(NPL) 및 기초대손충당금(ALL)변수가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유의(0.01수준)한 회귀값을 보임으로써 대손충당금의 조정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의 소형 상호저축은행 그룹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OFA)이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입을 통한 대손충당금의 조정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간 규모의 격차가 클 경우 자기자본 관리를 위한 이익조정 측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는 각각 0.882($F=85.619$) 및 0.941($F=283.2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제 3 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1. 이익유연화

연구결과 이익유연화와 관련하여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비재량적초과손익이 대손충당금설정액(대손상각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이익조정전 당해연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비재량적이익에 기초하여 이익관리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손상각비와 관련성이 많은 대출채권(LOAN)과 무수익여신(NPL)은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그 가운데 무수익여신(본 연구에서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사용)이 가장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래손실 발생율이 높아(고정 20%, 회수의문 75%) 대손충당금을 정상여신(0.5%)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적립하여야 하므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예상과 달리 정상·요주의여신(OL)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대상 기간중 고정이하 여신이 상당부분 요주의나 정상여신으로 재분류 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수익여신변화변수(ΔNPL)와 비업무용부동산(OFA)은 모두 유의한 값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신규로 취급 한 여신이 부실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동 기간 동안에는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는 대형저축은행의 보유비중이 소형저축

은행에 비해 아주 작아 영향력이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재량적 초과이익이 양(+)인 집단과 음(-)인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음(-)인 집단은 대손충당금설정액(PROV)과 비재량적초과이익(AEARN)간에 유의한 회귀값이 나타났으나 양(+)인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재량적 초과이익이 음(-)인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재 상호저축은행과 비수도권 소재 상호저축은행을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이익관리 현상에 대한 지역별 편차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의 크기에 따라 대형 및 소형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대형집단은 대부분의 설명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형의 경우에는 특정 변수만 유의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대형집단의 이익관리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자본관리

자본관리 측면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전체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종속변수인 대손충당금설정액과 검증변수인 자기자본비율간에 유의한 음(-)의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자기자본관리를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경우에도 이익유연화를 위한 이익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수익여신(NPL) 및 기초대손충당금(ALL) 변수만이 유의한 회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유지를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조정할 때에도 무수익여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자본관리에 있어서도 BIS비율이 기준비율(8%)이상인 집단과 미만인 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BIS비율 8%초과 집단의 경우 설명변수의 대부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비율 이하인 집단보다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본관리활동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 및 자산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는 지역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규모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호저축은행은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하므로 배당금에 연계된 경영성과 유지에 대한 유인이 강하여 이익조정 현상이 일반은행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른 무엇보다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용이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셋째 규모가 작은 상호저축은행 보다는 규모가 큰 상호저축은행에서 이익조정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한다.

넷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한 이익조정은 일반은행 보다는 상호저축은행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대손충당금 설정액 조정을 위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분류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여섯째 상호저축은행의 소재지역과는 상관없이 대손충당금 조정을 통한 이익관리가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제 6 장 결 론

2007년 하반기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 부실화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하락 위험이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중에는 리만브라더스 등 미국계 대형 금융회사의 도산 및 미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이상장세 현상의 지속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거액의 환차손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였다. 중소 수출입 업체들 또한 원자재 확보 및 자금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위기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부동산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담보로 한 PF대출을 경쟁적으로 취급해 온 금융회사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규모가 일반은행의 1개 영업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영세 상호저축은행들이 연합하여 취급한 PF대출이 부실화 되면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한 상호저축은행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상호저축은행이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익관리를 할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익관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이익조정을 위해 대손충당금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익관리는 이익유연화, 자본관리, 법인세관리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유연화 및 자본관리를 목적으로 한 이익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은 수익성지표에 초점을 두어 재량적 항목을 반영하기 전인 비재량적이익을 통해 적정한 보고이익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대손충당금의 조정을 통한 이익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은 19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퇴출되거나 합병되는 과정에서 142

개가 정리되어 '09. 6말 현재 106개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검증 기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재무의 건정성이 확보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간으로 정하고 동 기간 중의 상호저축은행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각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에 따라 이익 관리의 정도가 다른지 여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지역별 및 규모별로 각 집단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재량성이 높은 대손충당금설정액을 이용하여 이익유연화 및 자본관리를 추구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중간 이상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이익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손충당금설정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검증해 본 결과 무수익여신이 가장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요주의와 고정이 하간에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 감사시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는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도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이익 및 자본관리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착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일반은행보다 이익관리가 강하게 일어난다. 둘째 규모가 큰 상호저축은행이 이익관리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 셋째 상호저축은행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이익관리가 행하여지고 있다. 다섯째 보다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여섯째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부실이 증가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경영관리를 유예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시 규모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독당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

실을 염두에 두고 검사 및 경영지도에 임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다양한 분석을 추구하였으나 검증내용이 단순하고 연구결과가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상호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및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중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하여 시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및 자산 평가손익 등을 이용한 이익관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변수들을 이용한 분석도 앞으로 해 볼만 한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4), “상호저축은행계정과목해설”

구기동(1998),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국내은행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미(2004), “대손상각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호·박종일(2002),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호 : pp 81-116

문현주(2004), “대손상각을 이용한 은행의 이익관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현주(2005), “대손충당금설정액의 재량성과 은행가치 관련성 연구,” 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 pp 1-26

박한순(2001), “부동산처분이익을 이용한 이익조절,” 회계학연구 제1호 : pp 89-106

송인만·최 관(1992), “회계변경의 이익유연화 현상과 주가반응,” 회계학연구 제14호 pp 221-246

전용순(1999) “BIS비율 수준에 따른 이익관리와 자산관리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현미·박홍조(2006),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회계저널 제15권 특별호 : pp 23-44

최현돌·윤재원(2004), “은행대손충당금과 이익관리 및 자본적정성 비율관리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0호 : pp 131-158

최효순(2003), “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 조정과 주가반응,” 증권학회지 제32집 1호 : pp 35-70

2. 국외문헌

- Ahmed, A. S., C. Takeda and S. Thomas., 1999, "Bank loan loss provisions : A reexamination of capital management , earnings management and singnaling effec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8 : pp. 1-25
- Albrecht, W. D. and F. M. Richardson., 1990, "Income Smoothing by Economy Sector",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17(5), Winter : pp. 713-730
- Beaver, W.H and E.E. Engel, 1996, Discretionary behavior with respect to allowances for loan losses and the behavior of security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 pp. 177-206
- Burgh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pp. 99-126
- Cahan, S., 1992, The Effect of Antitrust Investigation on Discretionary Accruals : A Refined Test of Political - Cost Hypothesis, *The Accounting Review* 67(January) : pp. 77-95
- Collins, J., D. Shackelford and J. Wahlen, 1995, Bank Differences in the Coordination of Regulatory Capital, Earnings, and Tax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pp. 263-291
- Copeland, R. M., 1968, Income Smoothing, *Supplement to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pp. 101-116

- Darrough, Masako N., Hamid Pourjalali and Shahrokh Saudagran 1998, "Earnings Management in Japanese Compan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Vol. 33, No. 3, University of Illinois : pp. 313-334
- Dasher, P. E. and R. E. Malcolm., 1970, A Note on Income Smoothing in the Chemical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 pp. 253-260
- DeAngelo, H. and L. DeAngelo, 1994, "Accounting Choice in Troubled Compani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8 : pp. 3-42.
- Eckel, N., 1981, "The Income Smoothing Hypothesis Revisited", *Abacus* : pp. 8-40.
- Guay, W. R., S. P. Kothari and R. L. Watts., 1996, "A Market-Based Evaluation of Discretionary Accrual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34 supplement : pp. 83-105.
- Gaver, J. J., K. M. Gaver, and J. R. Austin 1995, "Additional Evid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Management and Earnings-Based Bonus Pla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 : pp. 3-28.
- Healy, P., 1985,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f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pp. 85-107
- Hunt, A., S. Moyer and T. Shevlin, 1995, "Earning Volatility, Earnings Management and Equity Value,"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shington.

- Lobo, G. J., and D. H. Yang, 2000, "Determinants of Signaling by Banks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Working Paper. Syracuse University
- Ma, C., 1988, Loan loss reserves and income smoothing, The experience in the U.S,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Research* : pp. 487-497
- Moyer, S. E., 1990, Capital Adequacy Ratio Regulations and Accounting Choice in Commercial Banks, *Journal of Accounting Economics* : pp. 123-154
- McNichols, M, 2000, Research design issues in earnings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nd Public Policy* 19 : pp. 313-345
- Ramesh, K. and L. Revsine,, 2000, The Effects of Regulatory and Contracting Costs on Banks' Choice of Accounting Method for Other Postretirement Employment Benef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 : pp. 69-99
- Wahlen, J. 1994, "The nature of information in commercial bank loan loss disclosures". *The Accounting Review* 69 : pp. 455-478
- Warfield, T. and T. Linsmeier., 1992, Tax Plann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Differential Earnings Component, *The Accounting Review* 67 : pp. 546-562

ABSTRACT

Earning Management by Mutual Savings Bank.

- Focus on Income Smoothing Behavior -

Sun, Soon-Yong

Major in Accounti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bull real estate market in 2000s, many financial institutions have vigorously developed Project Financing (PF) on security of expected real estate value. These institutions, however, are stumbling in the midst of the prolonged recession of real estate market, severely affected from the world economic crisis in year 2008. Further, the mighty amount of PF loan is in very shaky situation due to the series of the collapses of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real estate development firms. The harsher challenge overhangs the small Mutual Savings Banks (MSBs), 15% of whose assets are struggling in the PF loan swamp. Why most of the MSBs have to suffer tougher winter tha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s there any way to find a co-relation between business performance and profit management? My research is motivated by searching for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 formulate a regression equation with variables from proved prior researches. In addition, I perform the extra regression analysis on individual group to figure out differences on each group's profit

management. Statistical Sample of the research is all 106 MSBs operating in Korea in June, 2009 and I exam three years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amples from year 2007.

In general, the profit management in financial institution can be researched with three areas, Income smoothing, Capital management, and cooperate tax management. This research mainly focus on Income smoothing and Capital management only. In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concerned on profit flexibility in MSBs, the executives in MSBs tend to manage the profit based on Nondiscretionary Income which shows the pre-income adjustment outcome of the year. Sample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ne has positive(+) Nondiscretionary Income and the other has negative(-) one.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negative group,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oduce meaningful regression value between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and Nondiscretionary Excessive Income but on the positive group. the result is not very meaningful. Hence, the MSBs in the negaitive group are trying to control their income with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each regional groups, divided into Metro Seoul, Busan and other region, the result produce the meaningful explanatory variables, that is, there's no regional difference on income management. Further, the analysis on the big and small group divided based on asset size, MSBs in the big group tend to perform income management more actively.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asset management in MSBs, result produce very meaningful regression value between dependent variabl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and validation variable, Capital Adequacy Ratio. This result proves that MSBs are trying to

manage Capital Adequacy Ratio with manipulating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Like the research result on the profit flexibility, the research outcome produce meaningful regression values only in variables of Credit without profit and basic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In addition, I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based on standard BIS ratio, 8%. In the group having a higher BIS ratio than standard one, the outcome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is group more likely manage its asset using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than lower group. Further,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regional and asset size differences,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the regional groups but in the asset size wise, there are no meaningful differences.

This research could provide some valuable reference to the financial and bank supervisory authorities. When the authorities supervise and monitor MSBs, they should consider very important fact that executives in the MSBs pursue profit flexibility and capital management with manipulating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 which is very discretionary fund. With this careful consideration, supervisory authorities could evaluat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MSBs more accurate way. Although I try to pursue analysis in various aspects, contents of the validation are very simple a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very limit to the scope of other conventional researches.